

“은퇴 후에도 당연히 농촌 위해 살아야죠”

은퇴 후 **生**을 말하다 <10> <제2부> 인생 2막 여는 사람들

⑦ 광주농협 ‘빛찬들 귀농확산 운동본부’



빛찬들 귀농확산 운동본부 ‘삼총사’로 통하는 김엽수·정상수·송대범(왼쪽부터)씨는 농사의 즐거움을 맛본 뒤로부터 농장에서 펼칠 인생 2막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우리 첫 갑자 수확이잖아. 이젠 짝이야 해”

지난 4일 오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명화동 ‘빛찬들농장’. 이른 오전에도 맑이 송골송골 맺힌 ‘초보 농부’들이 연신 스마트폰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다. 300여 평(992㎡)의 온실농장에는 수확의 기쁨에 취한 50대 ‘예비 귀농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가 지난 2월 발족한 ‘빛찬들 귀농확산 운동본부’에는 은퇴를 5년 정도 앞둔 농협 직원 34명이 활동하고 있다. 일종의 귀농 동호회로, 이들은 매주 화요일 오전 모여 출근 전까지 함께 농사를 짓는다.

송대범(54) NH농협생명 광주지역총괄장은 총장을 맡아 본부를 이끌고 있다. 사무국장인 정상수(51) NH농협손해보험 광주총괄과 김엽수(53) 농협중앙회 광주지사국장도 농장의 꽃은 일을 도맡고 있다.

송씨는 5년째 무안군 몽탄면에서 다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준비된 귀농인이다. 그는 주말마다 무안과 광주를 오가며 3600㎡ 규모 온실농장에서 토종 다래를 키우고 있다. 마땅한 거처 없는 텃밭 신세이지만 ‘정산별곡’(靑山別曲)의 노랫말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게 송씨의 말이다.

송씨의 귀농일기는 블로그(blog.naver.com/solgnlarae)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그는 농장에서 소소한 일상을 1250여 명의 구독자와 공유하고 있다.

“1994년에 직장 생활을 시작해 쉽 없이 달려왔습니다. 은퇴한 선배들에게 들으니 퇴직 후 1년의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25년 넘게 농협에서 일했으니 은퇴 후에도 당연히 농민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담양이나 곡성 등 광주 근교는 이미 인기 귀농지가 되어서 오래라 밭흙을 팔아 찾는 끝에 무안 몽탄에 농장을 꾸리게 됐습

은퇴 앞둔 농협직원 34명 활동 ‘귀농동호회’

‘귀농본부 삼총사’ 송대범·정상수·김엽수씨 농장 운영하며 귀농일기 블로그 통해 공유 수확 농작물 기증... 현지 주민과 조화 중요

니다. 농협중앙회 시절 무안에서 4년 근무했던 경험도 이곳을 택한 데 한 몫 했습니다.”

송씨는 소매를 걷어 양 팔 전체로 퍼진 풀독 흉터를 전장에서 얻은 상처처럼 보여줬다. 그는 어린아이를 운영했던 아내(50)도 농사를 거들면서 야생진드기에 물려 큰일날 뻔 했다고 새내기 농부에게는 건강 관리도 아주 중요하다고 귀띔했다. 귀농 원칙 중 하나로는 원주민과의 어울림을 꼽았다. 송씨는 무안에 농장 터를 잡을 때부터 농협에서 일하며 쌓은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해 이웃들을 ‘내 편’으로 만들었다. 전문가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라면 광양 등 외지도 한달음에 달려가는 부지런함도 그의 장점으로 통했다.

‘빛찬들 귀농확산 운동본부’도 송씨의 경험을 살려 주민과 조화에 신경 쓰고 있다. 본부는 주기적으로 명화마을 영농 지도자와 농민들을 초청해 실습 교육을 받고 있다.

수확한 작물은 마을 경로당에 전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소비자연체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과 농민단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 여러 기관·단체와 함께 귀농 비법을 나누기도 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귀농귀촌 실태조사

귀농 준비 평균 2년3개월... 60% 만족

귀농을 준비하는 평균 기간은 2년3개월 정도(27.5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귀농·귀촌 2507가구를 설문조사한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귀농 준비 평균 기간은 27.5개월이었다. 1~3년 미만 준비한다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았고 ‘1년 미만’(19.1%), ‘3~5년 미만’(15.3%), ‘5년 이상’(12.1%)이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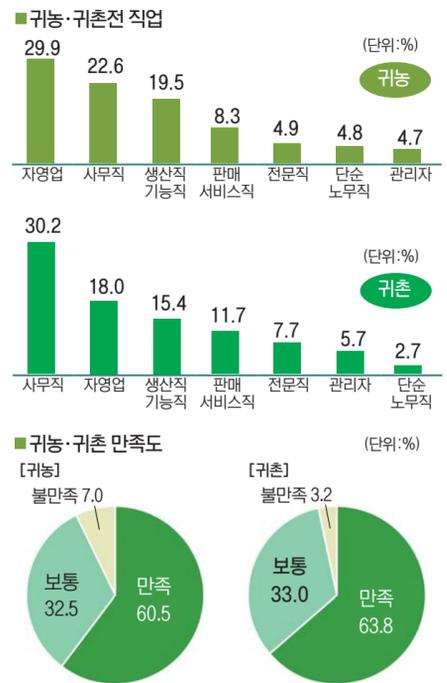
귀농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니 절반 이상(60.5%) 만족한다는 대답을 했다. 보통은 32.5%, 불만족은 7.0%이었다.

귀농·귀촌 유형은 농촌에서 태어나 도시생활 후 연구가 있는 농촌으로 이주한 ‘U턴형’이 1위(귀농 53.0%, 귀촌 37.4%)를 차지했다.

귀농을 선택한 이유로는 26.1%가 ‘자연환경이 좋아서’라고 답했고 ‘농업의 비전 및 발전 가능성을 보고’(17.9%), ‘도시생활에 회의를 느껴서’(14.4%)라는 답변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귀농 전에는 4232만원이었던 평균 소득이 귀농 1년차에는 2319만원 ▲2년차 3288만원 ▲3년차 3432만원 ▲4년차 3949만원 ▲5년차 3898만원으로 점차 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남지역에 귀농한 가구 수는 ▲2015년 3071명 ▲2016년 2999명 ▲2017년 2909명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빛찬들 귀농확산 운동본부’는

귀농 희망자에 농업교육... 농장 무료 지원·농작물 재배 기회

광주시 광산구 명화동에 600여 평(2000㎡) 규모로 펼쳐진 ‘빛찬들농장’은 예비 귀농인들의 연습장이다.

‘빛찬들 귀농확산 운동본부’는 농협에서 20~30년 간 일한 임직원들이 인구감소가 심각한 농업 현장으로 돌아가 활기를 불어넣기를 바라는 취지로 지난 2월 결성됐다. 본부와 농장이름은 광주시 농산물 대표 브랜드 ‘빛찬들’에서 따왔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귀농을 꿈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농장을 1년 동안 무료로 빌려주고 있다. 본부 회원들에게는 광주·전남도가 운영하는 귀농프로그램과 연계한 교육을 펼치고 있다.

회원 34명은 매달 회비 2만원씩 모야 종자 등 재료 구입비로 쓰고 있다. 회원 대부분이 농사 경험이 없다 보니 매주 화요일을 정기 방문의 날로 정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마련했다.

지난 3월 식재를 시작한 농장 작물 종류는 다양하다. 가지, 고추, 상추, 케일, 비트, 당귀 등 인기 채소와 셀러리, 치커리, 토마토, 수박도 있다. 동남아시아 외국인의 기호에 맞춘 고수도 20주 심어냈다. 지난 4월에는 노지에 옥수수, 땅콩, 단호박을 심어 규모를 키웠다. 수확한 작물은 마을 경로당에 나눠주거나 로컬푸드 직매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6월에 수



확한 하지감자는 농협 경매를 거쳐 수익금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이어갈 계획도 세워냈다.

김윤자 광주본부 지도경제단 차장은 “이번 여름에는 회원들과 함께 전남도가 운영하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체험하는 등 지자체 귀농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라며 “농협 직원은 물론 고객들도 농협에서 귀농교육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국제보청기

-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